

기만과 위선의 시대, 고전이 전하는 위로

“위선은 유행하는 악덕이며, 어떤 악덕이라 해도 유행하기만 한다면 미덕으로 여겨지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시험을 받는 법입니다. 그것이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내의 기회이지요.”

위선자 타르튀프(Tartuffe)는 신앙심 깊은 사람인 척하며 한 부유한 남자 오르공(Orgon)에게 접근한다. 그가 위선자임을 눈치챈 가족들이 아무리 말려도 오르공은 타르튀프를 성자처럼 떠받들 뿐이다.

“아, 타르튀프! 세상은 그를 오해하고 있지만, 그는 진정한 성인이지.” 자신의 가문과 재산을 모두 타르튀프에게 빼앗기고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오르공.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놓일 때마다 신을 핑계삼아 탐욕을 정당화하는 타르튀프.

기만과 위선이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진실이 무엇이든 ‘신’의 이름으로 탐욕을 정당화하는 시대. 정의를 외치는 이들은 배신자가 되고, 자기 확신에 빠져 분명한 사실마저 외면하는 어리석은 가장의 모습은 2025년 오늘의 대한민국을 떠올리게도 한다.

광주시립극단의 제24회 정기공연 ‘위선자 타르튀프’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4회에 걸쳐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광주시립극단 ‘위선자 타르튀프’

24~26일 고전명작 시리즈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서 공연

17세기 성직자·귀족들 풍자

탄핵정국 맞물려 공감대 높아

다. 원광연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시립극단의 고전 명작 시리즈의 일환으로 상영되는 ‘위선자 타르튀프’는 프랑스 극작가 몰리에르의 대표작으로 17세기 당시 성직자들과 귀족을 날카롭게 풍자한다.

타르튀프는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성을 악용해 이득을 취하는 성직자와 권력자를, 오르공은 판단력을 잃고 권위에 무비판적으로 휘둘리는 대중을 상징한다. 작품은 1664년 베르사유 궁전에서 초연된 이후 기독교 세력의 분노를 사 전면 금지되기도 했지만, 인간 사회의 허위와 위선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내용에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받

고 있다.

무엇보다 탄핵정국 속에서 우리 사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요즘, 360여년 전의 작품 타르튀프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모든 부정이 드러난 후에도 피해자인 체 행세하며 “저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고통받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나 고요!”고 뻔뻔스럽게 외치는 타르튀프와 “그가 아무리 과거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지금은 완전히 신앙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타르튀프를 신뢰합니다”라고 현실을 외면하는 아르공의 모습은 자연스레 현재 시국에 오버랩된다.

원 감독은 가족과 공동체 간 소통과 신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목했다.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해 대사를 수정하고 막간극, 프롤로그를 추가하는 등 각색을 거쳤다.

원 감독은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분되고 갈등이 극에 달한 지금, 가짜뉴스의 미혹에 빠졌을 때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작품을 통해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아집에 빠지지 말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무대에는 실력과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오르공

광주시립극단이 무대에 올리는 ‘위선자 타르튀프’. 왼쪽부터 양선영, 조유진, 이명덕 배우.



▲ 왼쪽부터 이지은, 이명덕, 문창주 배우.

역은 이명덕, 페르네 부인역은 양선영 배우가 맡는다. 특히 문창주 배우가 타르튀프 역을 맡는 등 젊은 배우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이번 공연은 색다른 활기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객들은 배우들이 섬세하게 표현해내는 인물의 감정을 따라 서사에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 감독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요즘, 관객들이 공연을 보며 마음껏 웃고 속 시원한 기분을 느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석 2만원, A석 1만원. 13세 이상 관람 가능.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피아노와 인문학의 만남

‘허효정의 인문학 리사이틀VI’

8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피아니스트 허효정(사진)’의 인문학 리사이틀 VI’이 오는 8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인문학 리사이틀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인문학적 강연과 작품 연주를 함께 선보이는 세미나 형식의 음악회로 스튜디오 공작이 주최한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음악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로 베토벤의 음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음악회를 진행하는 허효정 조대 음악교육과 조교수는 18-19세기 사료를 바탕으로 음악사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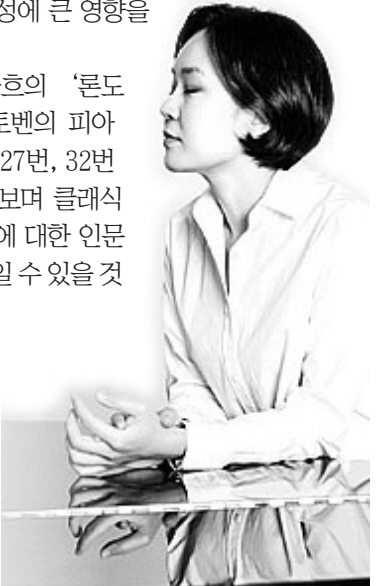
19세기 초반 유럽 음악계에서는 음악을 단순 감상하는 것을 넘어 분석하고 비평하는 이른바 ‘학식있는 청중’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바흐는 이를 ‘케너(전문가-Kenner)’와 ‘립하버(애호가-Liebhaber)’로 표현했는데, 이 케너의 부상은 베토벤을 포함한 음악가들로 하여금 점점 더 복잡한 형식의 미학적 작품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변화가 ‘클래식 음악’이라는 장르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줬다.

관객들은 바흐의 ‘론도(Rondo)’,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6번, 27번, 32번 등을 함께 들어보며 클래식의 역사와 흐름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석 초대.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신비로운 타조 세계, 그림으로 이해 쏙쏙

심명자 대한독서문화예술협 대표 ‘티나의 알’ 펴내

(사)대한독서문화예술협회를 이끌며 독서운동의 저변 확대와 독서 교육 전문가 양성에 주력해온 심명자 대표가 최근 그림책 ‘티나의 알’ (박북)을 펴냈다.

지난 2008년 발족해 대한독서문화예술협회는 그동안 지역사회의 도서관 활성화와 독서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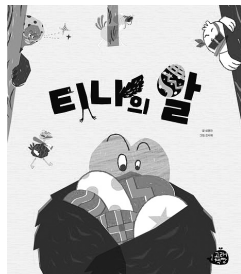
동화작가인 심 대표는 ‘대독문’ 북큐레이션 밴드에서 온라인으로 전국의 그림책 연구자, 활동가들과 교류하며 그림책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심 대표가 펴낸 그림책은 신비로운 타조의 세계를 이야기로 구현했다. 알을 노리는 무서운 자칼에 맞서 이를 지켜야 하

는 타조들의 공동체 생활을 그린 것.

심 대표는 “이번 작품은 가장 큰 타조가 천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 알을 품고 나머지 타조는 보초를 서며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내용”이라며 “자칼이라는 포식자로부터 알을 지키기 위한 타조들의 연대와 협력 등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타조마을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알을 낳으면 자칼들이 습격해 강탈해가는 것이다. 타조들은 회의를 열고 함께 알을 지키기로 한다. 가장 큰 ‘티나



심명자 동화작가

가 알들을 품고 다른 타조들은 길목을 지킨다. 각자에게 역할이 주어지지만 티나는 알을 품고 있는 것이 무려해 잠시 놀라버린다. 다른 타조들도 자칼이 나타나지 않자 긴장이 풀어져 즐기하는데...

작품은 타조들이 서로 싸우면서도 화해하고 하나가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타조들의 공동체 생활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생각거리를 준다.

한편 심 동화작가는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지금까지 ‘최고대상 포치’, ‘갑다의 분홍풍선’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향교 ‘독도 문제’ 인문학 강의 눈길

‘유림 민주시민 교양강좌’ 성료...정원식 박사, 한·미·일 관계 강연

광주향교(전교 기호석)가 매달 진행하는 인문학 교양강좌가 성료했다.

광주향교는 ‘제6회 유림 민주시민 교양강좌’를 최근 유림회관 2층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양강좌에서는 기존의 유학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독도 문제’에 대한 인문학 강의를 개설해 눈길을 끌었다.

(사)여성향일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장인 정원식 박사가 초청돼 ‘독도 문제와 한·미·일 관계’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정 박사는 이번 강연에서 “독도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로 국제 조약의 문제로 아닌 오직 국민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되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연에 앞서 부전교, 감사 등에 대한 임명장 수여, 춘기석전 결산 및 장의 연수가 진행됐다.

기호석 전교는 인사말에서 “향교가 점차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오는 4월에도 춘계유적지순례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향교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유림 및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